

중세 픽션 산문의 형성 과정

윤 선 미
단독/배재대학교

Yoon, Sun-Me(2004), La evolución de la prosa de ficción en la Edad Media. *Revista Iberoamericana*, 15, 111-124

En la Edad Media, los límites entre la ficción y la no ficción no eran precisos. No existía un terreno literario propio y exclusivo de la ficción sino que ésta podía aparecerse en cualquier tipo de texto, incluso en aquellos que hoy consideramos antípodas de la ficción, como son los textos científicos e historiográficos. La razón es que la ficción no tenía un estatuto independiente sino que estaba subordinada a una función didáctica. Dicho de otro modo, la ficción no era válida en sí misma sino que servía como instrumento para enseñar verdades y saberes importantes, como las de la fe religiosa o las morales. De este modo, la ficción se filtra a escondidas en los textos considerados serios y aparece siempre disfrazada de historia o moraleja. Por otra parte, en la literatura española medieval, el desarrollo de la ficción está íntimamente ligado al desarrollo de la prosa. Como la ficción necesita de un sistema lingüístico suficientemente desarrollado para dar vida a sus complicadas estructuras argumentales, la prosa literaria tuvo que alcanzar primero suficiente fluidez y maestría. Así pues el triunfo de la ficción coincide con el último estadio de evolución de la lengua y de la literatura castellana. En este presente trabajo, echamos un sumario vistazo a esta evolución desde los albores de la Edad Media hasta entrado el siglo XV.

Key Words: función de ficción/ evolución de prosa/ literatura medieval española, 픽션의 기능/ 산문의 발전/ 중세 스페인 문학

I. 서론

중세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서양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무척 매혹적인 시대이다. 따라서 당시의 문화와 문학,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독특한 세계관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많은 개념들을 포기해야만 한다.

우리가 재정립해야만 하는 그 개념들 중 하나가 픽션이라는 것이다. 현재는 어린아이까지도 픽션, 즉 상상력과 창조력에 의해 만들어진 소설과 논픽션이라는 것을 구분할 줄 안다. 우리는 역사책이나 신문에서는 오류나 거짓은 있을 수 있어도, 픽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픽션은 소설이나, 영화, 연극 같은 오락 장르에 속하며, 사실을 다루거나 검증이 가능한 과학이나 역사와는 절대 혼동되지 않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중세 때는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가 그리 명확하지도, 뚜렷하지도 않았다. 픽션은 모든 종류의 텍스트에서 사용되었다. 이는 먼저 픽션이라는 것이 독립된 위상을 갖추고 있지 못해, 독자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주로 교훈적 기능에 종속되어 있었다. 즉, 종교나 도덕 같은 중요한 지식이나 사실들을 가르치는 보조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이 온전히 오락거리만을 위해 쓰여진 책은 없었다. 당시의 책들은 양피지로 만들어 값도 비싸고 구하기도 무척 어려웠다. 후에 종지로 대체되긴 했지만, 여전히 손으로만 필사되다보니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긴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책이란 꼭 알아야 하는 사실과 지식들을 전달하는 데만 사용되었지, 실제로 있지도 않았던 일들을 다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중세 때는 픽션이 존재하지 않았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상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자 능력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중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상상력이 풍부했던 시대 중 하나였다. 예를 들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는 중세에 기원을 둔 특이한 생명체들의 마법 세계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한 것이다. 중세 때에도 픽션은 존재했다. 그러나 하위 범주에 머물러 주요 텍스트들의 행간에 숨어있으며, 역

사나 도덕으로 덧씌워진 채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다시 살펴보아야 할 또 다른 개념은 산문이라는 것이다. 현대적 관점에서는 산문이 시보다 더 쉬운 문학 표현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은 않다. 산문은 언어 기교 면에서 운문보다 훨씬 더 원숙함과 자유분방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문, 즉 픽션은 언어 발달에서 최종 단계를 차지한다. 왜냐하면 픽션에는 복잡한 줄거리 구조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달된 언어 체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중세 때는 산문 문학 장르들이 운문 문학 장르들 보다 더 뒤에 나타났다.

II. 산문 문학

1. 13세기: 역사산문과 교훈 산문 번역

로망스어로 된 최초의 문학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문자를 알지 못하던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발전된 구전 문학이다. 이것은 운문이었으며, 노래 형식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구전 문학 중 가장 잘 알려진 대표작들은 무훈가와 짧은 서정시 형태인 로만세다. 이러한 로만세가 쓰여진 건 13세기 들어서이다.

스페인에서 13세기는 위대한 문화 부흥의 시대이다. 재정복 전쟁은 이미 세기 초에 절정에 달해 안달루시아의 주요 도시들이 대부분 탈환되었으며, 아랍인들의 영토는 작은 그라나다 왕국으로 한정되었다. 이에 따라 까스티야(Castilla) 왕국에서는 왕권이 점차 강화되어 갔다.

이 단계는 도시의 발전과 부르주아 계층의 등장으로 특징 지워진다. 도시의 발전이란 곧 문화의 중심이 수도원에서 왕궁이 위치해 있는 도회지로 바뀌었다는 뜻이다. 또한 살라망까(Salamanca, 1218) 대학교와 같은 최초의 대학교들이 세워져, 이제는 지식이라는 것이 교회의 배타적인 자산이 아니라 세속화되어 국왕과 영주들의 궁정으로 확산되어 갔다.

13세기에는 문학 창작이 운문으로만 이루어졌다. 13세기 전반부에 승려 문학(Mester de Clerecía)이라 불리는 교양 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서사시를 읊고 다니던 방랑 시인들의 대중적인 구전 문학과는 정반대되는 경향으로, 글로 쓰여진 것이었다. 서사시가 주로 작가 미상이며 집단적인 창작물이었던 반해, 이 교양 시는 작가 개인, 즉 수도사 1인의 작품이다¹⁾. 다시 말해서 로망스어로 쓰여진 최초의 문학 작품들은 산문이 아니라 운문이었던 것이다.

이 시대의 산문은 아직 문학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만큼 충분히 발전되지 못했던 것이다. 먼저 사고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의 발전이 필요했다. 이러한 면에서 까스티야 왕국의 알폰소 10세(1252-1284)의 문화 사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현왕(el Sabio)라고도 불리는 그는 톨레도의 번역자 학교를 통해 라틴어, 아랍어, 히브리어 등으로 쓰여져 있던 각종 서적들을 까스티야어로 번역케 했다. 이러한 대규모 번역 사업을 통해 고전어(라틴어, 그리스어, 아랍어)와 로망스어 두 언어 체계 사이의 지속적인 비교와 융합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곧 까스티야 로만세가 교양어의 체계와 풍부한 표현력을 흡수하는 계기가 되었다.

알폰소 현왕은 이러한 대규모 번역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작품들을 까스티야어로 직접 쓰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쓰여진 가장 중요한 작품들이 역사서인 『스페인 역사 *Estoria de España*』와 『세계사 *General Estoria*』로써, 이들은 갖 체계를 갖춘 까스티야 왕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통합성을 과시할 목적에서 쓰여진 책들이다. 알폰소 현왕은 이밖에도 천문학, 법학, 음악, 고급 놀이에 관한 서적들을 번역하거나 저술케 했다. 이러한 모든 로망스어로의 번역과 저술 활동은 문학적 표현 능력을 고양시켜 산문의 등장에 결정적인 전기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학술 서적들은 픽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중세에는

1) 장르의 주요 대표작은 곤살로 데 베르세오(Gonzalo de Berceo)의 종교적 성향의 작품들이다. 그러나 또한 『아폴로니오 서 *Libro de Apolonio*』나 『알렉산드레 서 *Libro de Alexandre*』 등과 같은 작가 미상의 역사 전설 서로써 소설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도 있다. 14세기의 『가연지서 *Libro de Buen Amor*』 또한 이러한 시 형식의 후기 작품으로 평가된다.

문학적 요소로 간주되지 못하던 픽션이 의외의 방식으로 나타났다. 알폰소 10세 왕이 주도한 연대기 저술에서 로마나 아랍 연대기뿐만 아니라 무훈시도 역사의 근거로 참고 되었다는 사실이 좋은 예이다. 따라서 방랑시인들에 의해 창조된 허구적인 에피소드들이 역사에 편입된 것이다.

알폰소 현왕 덕에 등장한 이러한 역사나 과학적 산문 이외에도, 13세기에는 교훈적 목적에서 쓰여진 산문들, 즉 모범집(exemplo)과 격언집(sentencia)도 있다. 모범집은 설교에서 유래된 것이다. 교회에서는 신자들의 관심을 끌고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설교를 모범들로 장식하기도 했다. 모범집은 (이야기, 우화, 비유, 기적, 일화 등과 같은) 짤막한 단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적, 도덕적 논쟁이나 가르침에 대한 증거, 계몽, 설명이나 행동 모델 등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는 대체로 성경이나 성인들의 삶에서 유래되었지만, 곧 더 다양한 기원의 이야기들이 첨가되었다.

이러한 모범 사례들이 설교에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이 짤막한 이야기들을 문학적으로 묶을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를 위해 당시 아랍어-까스띠야어 번역을 통해 유행하던 격언집이나 동방 역사에서 흔히 발견되던 서술 형태인 스승과 제자 사이의 질문-대답 형식을 빌어왔다.

모범 전집과 더불어 고대 성인들의 격언집도 큰 인기를 끌었다. 13세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호머, 오비디우스, 알렉산더 대왕, 아담, 헤르메스 등의 이름을 판 많은 위작 격언집들이 아랍어로부터 번역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훌륭한 격언집 *Libro de los buenos proverbios*』, 『황금 격언 *Bocados de Oro*』, 『비밀 중 비밀 *Poridad de las poridades*』 등이다. 이 책들에는 현자들의 대화나 스승과 제자 사이의 질문, 대답 등과 같은 다양한 격언들이 수록되어 있다. 종종 지혜나 숨겨진 비서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에 가면 그 비서는 독자가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바로 그 책이 된다. 동방 기원의 이 책들을 모델로 삼아, 중세 전 기간 동안에 수많은 격언과 금언집이 까스띠야어로 쓰여졌다.

격언이나 금언집 이외에도, 13세기에는 많은 동방 이야기들이 아랍어

에서 번역되었으며, 이것들은 까스띠야 교훈 산문의 첫 모델이 되었다. 주요 작품들로는 알폰소 현왕이 아직 왕자였을 때 아랍어에서 번역케 한 『칼릴라와 딘나 *Calila y Dimna*』, 그의 동생인 파드리케(Fadrique) 왕자가 번역한 『센데바르 *Sendebarr*』와, 『바아를람과 조사파트 *Baarlám y Josafat*』 등이 있다.²⁾

이러한 모범집과 이야기들의 유용성과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세 때 존재했던 지식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책들은 옛 사람들의 지식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진정한 보고로 여겨졌다. 지식이란 끊임없이 확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현대와는 달리, 중세 때는 지식을 이미 완전하고 완결된 체계로 여겨 더 이상의 첨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최대의 관심사는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식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적이고 닫힌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은 당연히 책이었다. 따라서 중세의 작가들은 대체로 이미 고서에 나와 있는 것들만을 서술했다. 왜냐하면 고전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삶의 지혜와 지식들이 책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짧은 생애에 모든 책들을 다 읽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따라서 필요한 지식을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꾸미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범집, 이야기, 격언 등을 묶어 놓는 것은 지식 전파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 왜냐하면 짧고 쉽게 배울 수 있고, 그 배운 것을 쉽게 기억할 수 있으며, 즐거움까지 제공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형태의 작품들에 수록된 지식은 도덕적이며 실용적인 것들이었고, 사람들에게 행동 규범 노릇을 했다. 따라서 이러한 동야의 지혜 모

2) 『칼릴라와 딘나』는 왕과 스승인 철학자간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왕이 자신의 스승에게 조언을 구하자, 스승은 우화를 들려줌으로써 답을 하는 형식이다. 『센데바르』에서는 『천일야화』에서처럼 한 사람의 죽음을 막기 위해, 즉 상대방의 행위를 지체시켜 시간을 벌기 위해 우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바아를람과 호세파트』은 아랍어에서 번역된 것이 아니라, 라틴어에서 번역된 것이다. 따라서 내용은 이미 상당히 기독교화 된 채 반도에 들어왔다. 내용은 부처님 이야기이다. 즉, 호세파트 왕자가 궁을 떠나 질병, 기아, 죽음이라는 인간 삶의 고단함을 알게되자, 현자인 바아를람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는 내용으로, 이 또한 모범집과 비유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음집 번역은 주로 왕실에서 후원했다. 이는 이 책들이 주로 ‘왕자들의 거울’, 즉 왕자들이나 귀족 자제들을 교육시키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2. 14-15세기: 교훈 픽션과 기사도 픽션

(1) 돈 후안 마누엘

13세기에는 수입된 픽션들의 번역 작업만이 이루어졌다. 스페인 로망스어로 쓰여진 최초의 픽션이 등장하는 것은 14세기 들어서이다.

돈 후안 마누엘(1282-1349)은 모범 문학의 형식과 주제를 가장 잘 개척한 작가이다. 동양 작품들의 모델에 따라, 서술 구조를 스승과 제자 사이의 질문-대답 형식으로 잘 꾸미고 있다.

『계층서 *Libro de los Estados*』는 『바아를람과 호세팻』의 줄거리를 재연하고 있다. 호아스(Johas)는 이교도 왕자로서 죽음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나 시체를 본 후 고뇌에 빠지자, 기독교 철학자인 홀리오(Julio)가 그를 참 신앙으로 인도해 그와, 그의 부모, 전 왕국을 개종시킨다는 이야기이다. 교화 과정은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짧고 심오한 모범집에 기초하고 있다. 동양 전설과의 차이는 돈 후안 마누엘은 등장 인물에게 세속적 삶을 포기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그의 관심사는 귀족으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려는 것이다.

대화 형식으로 지혜를 소개하는 것은 돈 후안 마누엘의 대표작인 『루까노르 백작 서 *Libro de conde Lucanor*』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루까노르 백작은 귀족 권력가로서 자신의 조언자인 빠뜨로니오(Patronio)와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논의한다. 빠뜨로니오는 문제를 받으면, 그에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담겨있는 한 모범 예를 이야기함으로써 대답한다. 빠뜨로니오는 교훈을 설명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이야기를 끝맺는다. 현대적 관점에서는 모범이나 이야기 그 자체가 재미있어 흥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모음집 형태로 유포되던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던 당시의 독자들은 작가가 작품에 투영시키고

있는 세계관과 교훈적 해결 방안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즉, 당시의 독자들은 모범집이라는 허구의 세계와 그것을 유발시킨 실제 삶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치와 불일치 조정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돈 후안 마누엘은 알폰소 현왕의 조카로서, 당시의 정치적 격변기를 몸으로 겪은 귀족이다. 그의 사회적 부침은 그로 하여금 글을 쓰도록 했으며, 그는 작품을 통해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재구성하고 자신의 정치적 행위들을 정당화시킬 구실들을 찾았다. 따라서 『루까노르 백작서』가 중세의 단순한 모범집만은 결코 아니다. 만약 그의 『국가서』가 사회 전반적인 설명서라면, 이 『루까노르 백작서』는 자신의 동료들, 여기서는 귀족 계급이 지녀야만 했던 행동 양식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루까노르 백작서』가 『모범서 *Libro de los exemplos*』 이외에도 다른 두 부분을 더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격언서 *Libro de los proverbios*』와 종교적 구원을 다룬 『결어 *Epilogo*』가 그것이다. 모범집 부분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써, 교훈적 내용과 사회적 행동 규범을 담고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격언집은 지혜와 지식 탐구의 초보자들을 위한 것으로써, 더 압축되고 애매모호한 언어로 되어 있다.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결어』는 영혼의 구원에 필요한 지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루까노르 백작서』는 실제로 한 인간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완결된 지침서이다.

(2) 픽션의 승리: 기사 소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세 때는 픽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교훈적 기능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었다. 즉, 픽션은 교훈과 도덕적 내용에 종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픽션이 승리를 거둔 장르, 즉 픽션으로 인해 오락 기능이 승리를 거둔 장르는 바로 기사들의 모험담을 엮은 기사 소설이다. 그러나 아직은 교훈적 기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었으며, 이러한 소재가 스페인의 고유한 것도 아니었다.

이는 유럽, 더 정확히는 프랑스로부터 수입된 소재였던 것이다.

이러한 픽션은 내용이 기사들의 모험을 그린 것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중세 사회는 성직자, 기사, 농노 세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사 계급은 봉건 영주들을 섬기며, 무력으로 다른 계급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이 계급은 본래는 비교적 개방된 전문가 집단이었다. 영주를 주군으로 섬기기 위해 타고 다닐 말과 무기만 있으면 족했고, 영주는 그 대가로 봉토와 기사 작위를 수여했다. 이 기사 계급이 절정에 달했던 것은 11세기 말부터 12세기 초반 십자군 전쟁 기간이었으며, 스페인에서는 13세기 중반 재정복 전쟁 기간이다. 그러나 곧 기사 계급은 폐쇄적이고 보수적으로 변해 일반 대중 계층과는 멀어져 갔으며, 점차 사회적 무게를 더해갔다. 결국 기사도의 가치를 이상적으로 고양시키는 매우 정선된 기사도 문학이라는 것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이상주의적이며 도피적인 문학이다. 따라서 이 종류의 문학은 귀족 계층이 과거의 기사도적인 관습을 버리고 궁정인으로 변모했을 때 등장하고 발전했던 것이다.

발상의 중심지는 12세기 프랑스 남부였다. 이 곳에서 처음으로 음유시인들이 기사들의 무훈을 읊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프로방스 서정시에서 유래된 사랑의 노래와 결합된 서사시이다. 아키타니아 레오노르 궁정의 음유 시인이었던 크레띠앙 데 트로와(Chrétien de Troyes)는 브레타뉴 지방의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들 전설을 자신이 알고 있던 풍부하고 환상적인 켈트족 신화와 결합시켜 재창조했으며, 여기에다 기사도와 사랑에 대한 방향성을 부여했다. 이후의 작가들은 다시 여기에다 새로운 모험과 줄거리를 덧붙여 복잡한 아더왕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즉 마법사 메를린, 랜스롯과 기네비어 왕비와의 사랑, 성배 이야기, 아더왕의 죽음, 트리스탄과 이졸다의 비극적인 사랑 등을 첨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편력 기사의 모델이 만들어졌다. 즉, 모험을 찾아 길을 떠나는 무예 실력이 출중한 용감한 기사. 그는 아주 겸손하고, 특히 여인에게 한없이 예의 바르며,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인물로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기독교를 수호하는데 온 몸을 던지는 영웅이 만들어진 것이다.

기사 소설의 특징은 마법사와 마법 세계, 괴물, 기인, 난쟁이 등과 같은 환상적인 요소들이 개입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험이 벌어지는 공간은 대체로 머나먼 이국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 땅이 된다. 주요 테마는 사랑과 모험이다. 모험은 주로 시련의 연속이다. 괴물들과 맞서 싸우기도 하고, 뭍가를 찾아 멀고도 험난한 여행을 떠난다. 여행 도중 주인공은 험난한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뭍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값진 것을 얻게 된다. 편력 기사들에게 여행은 필연적인 것이며, 인간 존재의 상징으로써 기능 하고 있다. 즉 인간은 여행자이며, 삶은 순례라는 생각인 것이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러한 프랑스 풍의 픽션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 순례길을 따라 13세기 말 경 포르투갈로 먼저 들어갔다가, 후에 까스띠야로 들어왔다.

번역되어 유포된 이 기사 소설들은 14-15세기에 특히 인기가 있었으며, 16세기에 절정에 달한다. 이 때는 이미 책들이 인쇄되어 나오기 시작했고, 또 많은 기사 소설들이 자체 창작되어 나오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스페인에서 자체 창작된 첫 기사 소설은 14세기 초반에 쓰인 『기사 시파르 서 *Libro del Cavallero Zifar*』이다. 내용은 기사 시파르와 그의 아들 로보안(Roboán)이 여러 가지 모험을 겪다가, 결국 자신들이 정복한 땅의 왕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아직도 순수한 모험 이야기보다는 교훈적인 내용이 더 많이 담겨 있다. 주인공인 시파르의 삶은 성인 에우스따끼오(Eustaquio)와 닮아있고, 많은 종교적 기적과 모험 사례들이 등장하고, 특히 격언들이 전체 책의 4분의 일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기사 소설은 『아마디스 데 가울라 *Amadis de Gaula*』로써, 이 또한 아더 풍의 영웅을 본떠 만들어진 인물이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판본은 1508년 로드리게스 데 몬탈보(Rodríguez de Montalvo)가 쓴 것이지만, 그 이전에 최소한 두 개의 판본이 더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실된 첫 번째 판본은 14세기 초반의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는 1508년 판본에서 포르투갈 왕의 동생이 이전의 내용을 바꾸라고 지시했

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유실된 두 번째 판본은 1375년경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바에나의 노래 *Cancionero de Baena*』에서 『아마디스 데 가울라』의 세 번째 판본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몬딸보는 자신의 판본 서문에다 기존의 세 판본을 교정하고, 네 번째 판본은 많이 수정했으며, 세르가스 데 에스쁠란디안(*Sergas de Esplandián*) 이야기와 아마디스 아들의 모험 이야기가 담겨있는 다섯 번째 판본을 첨가했노라고 적고 있다. 이 책은 인기가 대단해 이후 16세기 모든 스페인 기사 소설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아마디스의 판본들은 중세 텍스트들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필경사들은 기존의 작품을 그냥 필사하기 했고, 자기 입맛에 맞게 기존 내용에 첨삭을 가해 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에는 요즘과 같이 개인 저작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아무도 독특한 새로운 것을 창작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가들도 굳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른 한 편으로, 당시에는 픽션이 거짓말과 동일시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픽션을 쓴다는 것이 작가들에겐 별 매력이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픽션 작가들은 대체로 익명으로 책을 내거나, 자신의 작품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마치 옛 고전을 번역한 것처럼 꾸몄다. 예를 들어, 『기사 시파르 서』의 경우, 작가는 서문에서 자신의 작품이 (바빌로니아 남부의 옛 이름인) 깔테아어를 라틴어로, 라틴어를 다시 로망스어로 번역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동양 소설들을 번역할 때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작품이 머나먼 미지의 나라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사 소설에서는 흔한 일이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몬딸보가 아마디스에서 세르가스 데 에스쁠란디안 부분을 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소설에서는 이 부분이 콘스탄티노플 근처의 한 작은 암자에 있는 돌무덤 속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적고 있다. 이것을 어느 헝가리 상인이 스페인으로 가져왔고, 자신의 손에 들어오기 전에 번역가들에 의해 번역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작가는 단지 자신이 입수한 자료들을 편집만 한 것일 뿐이므로, 거기에 기술된 허구적 내용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작가가 원하는 것은 자신이 허구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든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픽션이라는 것이 도덕적 가치가 있지 않는 한 아무런 권위도 가치도 없기 때문에, 작가들은 작품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꾸 역사적 서술 기법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작품이 역사 연대기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작품이 옛 문헌을 번역한 것이라고 자꾸 밝히는 이유도 독자들로 하여금 그것이 창작물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불가능했을 때는, 해당 사건들 대해 현존하는 직접적인 증인들을 들이댔다. 중세 때는 눈으로 직접 봤다는 증인이 구술한 것이 무척 신뢰감을 더해 주었기 때문이다. 아마디스에서는 올바르게 유식한 엘리사벳(Elisabad)이라는 스승이 왕에게 세르가스 데 에스쁠란디안 부분을 써주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이는 그가 모험 기간 내내 그 영웅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작품이 픽션이라는 것을 숨기고 내용에 역사적 진실성을 덧붙이기 위해서, 작가들은 등장인물과 줄거리, 해설 등을 점점 더 복잡하게 꾸몄다. 에스쁠란디안 중간쯤에 보면 작가인 몬탈보는 사건의 진실성을 숨기고 정당화시키는데 지쳐, 글쓰기를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 경우, 몬탈보는 자신이 마법사인 우르간다(Urganda)에 의해 취조실로 끌려가, 자신이야말로 이 이야기를 쓰는데 최적의 인물이라고 선고를 받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몬탈보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현존 증인을 끌어들이고 있다. 즉, 자기 자신을 자기 픽션의 증인으로 삼은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쓴 환상적인 얘기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증인이자 작가인 몬탈보의 신뢰성은 이야기 속에서 최고의 마법사로서 최고의 권위를 지닌 인물로 등장하는 우르간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IV. 결론

중세에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창조적이고 환상적인 픽션이 풍부했

다. 그러나 그 오락 기능이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훈적 목적이나 역사 서술 뒤에 숨어 있어야 했다. 따라서 작가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허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자신들의 작품이 독자들의 도덕심을 고양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스스로를 정당화시켰다. 실제로 기사 소설들은 예외범절과 기독교와 기사도적 가치를 가르치는데 쓰이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픽션 작가들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비난받을까 두려워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사라센 연대기 *Crónica Sarracina*』³⁾의 작가는 작품을 익명으로 내놓았으나, 한 역사가가 그를 거짓말쟁이, 허풍쟁이라고 비난함으로써 작가의 이름이 빼드로 데 꼬랄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정도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중세 때에도 픽션은 존재했으나, 지금과 같은 종류의 픽션은 아니었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첫 픽션(소설)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것이 실제 이야기를 썼거나 기사 세계의 비현실성을 고발해서가 아니라, 픽션을 역사와 종교, 도덕적 진실이 속해 있는 사실 세계와 분리시켜 완전히 상상의 세계에만 몰입시킨 첫 작품이기 때문이다.

3) 스페인 최초의 역사 소설로 간주되는 이 책은 『로드리고 왕 연대기 *Crónica del rey Rodrigo*』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1430년경 빼드로 데 꼬랄(Pedro de Corral)에 의해 쓰여졌다. 다루고 있는 내용은 비시고도 왕국의 마지막 왕인 로드리고에 의한 까바(Cava)의 점탈과 그녀의 아버지인 홀리안 백작의 반역으로 인해 야기된 이슬람교도들의 침입, 비시고도 왕국의 멸망, 이슬람교도들의 북진과 아스투리아스 지방의 꼬바동가(Covadonga)에서 이루어진 벨라요(Pelayo)의 승리(711-722) 등이다.

참고문헌

- Alvar, Carlos; Gómez Moreno, Ángel y Gómez Redondo, Fernando(1991), *La prosa y el teatro en la Edad Media*, Madrid, Taurus.
- García Gual, Carlos(1990), *Primeras novelas europeas*, Madrid, Ediciones Istmo.
- Gómez Redondo(1994), *La prosa del siglo XIV*, Madrid, Ediciones Júcar.
- _____ (1998), *Historia de la prosa medieval castellana*, I-II, Madrid, Cátedra.
- Lacarra, María Jesús(1984), *Cuentística medieval en España: Los orígenes*, Zaragoza, Universidad de Zaragoza.
- Lacarra, María Jesús y López Estrada, Francisco(1993), *Orígenes de la prosa*, Madrid, Ediciones Júcar.,
- Pedraza Jiménez, Felipe B. y Rodríguez Cáceres, Milagros, *Las épocas de la literatura española*, Barcelona, Ariel.
- Williamson, Edwin(1991), *El Quijote y los libros de caballerías*, Madrid, Taurus.

윤선미

배재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E-mail: yuniwan@hanmail.net

논문접수일: 2004년 5월 28일

심사완료일: 2004년 9월 22일

제재확정일: 2004년 12월 10일